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04 December 12

- 3 머릿글**
심용섭 Westwood Media 사장
- 4 월프로그램**
12월 프로그램
- 6 화제의 강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 10 커버스토리**
김창준 고려대 연구교수 / 전 미연방 하의의원
- 14 나의 경영이야기**
유무중 다이몬드치재(주) 회장
- 16 2004 연구원 이모저모**
- 18 수필**
김진희 (주)ESODO 사장
- 20 세상을 보는 눈**
탁계석 리더스컬처클럽 대표 / 음악평론가
- 22 회원&연구원소식**
- 26 특별세미나**
- 28 리더십이야기**
엄경애 한국엘엠아이(주) 사장
- 29 이시형 칼럼**
- 30 발행인편지**

표지인물 김창준 고려대 연구교수 / 전 미연방 하의의원

재미 한국인의 성공신화로 불리는 김창준 전 미연방 하의의원은 오늘날 한국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개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개혁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치권의 개혁을 통해 경제자유를 보장할 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정치권의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

43년간의 미국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들을 한국사회에 알리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싶다는 김창준 전 의원을 만나 한국적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들어보는 한편 향후 계획과 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관련기사10~13면>





친환경 품질인증
'우수등급' 획득



自然本色! 삼화의 컬러입니다



사람은 물론 건물에서 선박, 항공기까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삼화페인트 컬러 테크놀러지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환경친화와 첨단기술이 함께 공존합니다.

환경부 '환경마크'를 획득한 최고급 친환경페인트- 에버그린

- 중금속, 유기용제,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전혀 함유되지 않았습니다.
-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 방출 및 곰팡이 방지기능이 있습니다.
- 서울시 녹색 구매 기준에 합격한 건강 페인트입니다.
- 유명 건축물 시공으로 최고의 제품력 및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EverGreen
친환경 페인트 에버그린

☎ 고객 상담실 1544-5357
www.spi.co.kr / www.paintclub.co.kr

SAMHWA
삼화 페인트

영화시장 개방압력과 한류열풍에 즈음하여

최근 우리 영화산업계가 미국으로부터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미국 영화산업의 경우 거대한 할리우드가 축이 되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약 100년 남짓의 역사를 거쳐 초기에는 영세적 개인사업 위주로 시작되었으나 오랜 시간을 거쳐 조직화, 체계화, 거대 자금을 뒷받침한 기업화로 발전했다. 현재 회사 가치가 100억불을 넘어서고 있는 ‘Universal’, ‘Warner’, ‘Paramount/Viacom’ 등 메이저사들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메이저사들은 준메이저사들에 버금가는 회사들과의 합병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더 많은 영화제작 및 배급망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A급의 경우 8천만불을 넘어서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영화제작사들의 편당 제작비인 100억원 이하와 견주어 볼 때, 최소한 자금력 면에서는 경쟁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최근 및 향후 추이는 막대한 기술과 자금을 바탕으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의 대거 등장으로 우리의 영화산업과는 아직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지난 1998년 이후 아시아시장에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시작됐다. 첫째는 국내시장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출현으로 획기적인 영화시장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기업이 문화산업에 참여하면서 영화산업의 기업화가 시작되고 있다. 셋째는 재능있는 젊은 인재들이 시장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는 시장도 커지면서 기업화로 진전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관계자들도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일이다. 네 번째는 국내 작품에 대해 해외에서 작품성과 상업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과감한 제작비를 투자한 ‘와호장룡’, ‘영웅’과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가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작품성과 상업성을 인정받아 성공했으며, 이를



심용섭 Westwood Media 사장

1954년 생 / '78 美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경영학과 졸업 / '82~'84 美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경영학 석·박사 / '93 제일제당 이사보 / '95 제일제당 CJ엔터테인먼트 상무이사 / '96~'99 EMI코리아 사장 / '98~'00 제일제당 CJ엔터테인먼트 사업총괄 본부장 / 현 Westwood Media 사장

기반으로 영화의 메카인 미국에서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인정 및 수요가 창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아시아시장에 거세게 불고 있는 한류열풍은 상업적으로는 한국 문화산업에 처음 발생하는 일이다. 물론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인정과 수요가 해외로부터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다. 지난 여름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이 중국인 가수를 내세워 기획, 제작한 음악이 세계 최고 권위인 ‘빌보트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유사한 아시아콘텐츠가 국제화되어 본 적은 과거 이소룡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홍콩영화의 세계화 붐이 먼저였다. 하지만 액션이라는 장르를 구심점으로 시작한 홍콩영화산업은 30년을 이어가지 못했다. 자금력과 경영능력을 겸비하지 못한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우수한 장르를 지니고도 역사 속에 사라진 홍콩영화산업 자멸의 역사를 거울삼아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 문화산업에 다가온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현주소를 직시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육성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자금력과 경영능력을 수반한 대형 기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이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미국으로부터의 ‘스크린쿼터제’ 폐지 압력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이 육성될 것이다. 특히 바로 현시점에서 미국의 ‘스크린쿼터제’ 폐지 압력으로 인하여 한류열풍과 같은 우리 문화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동양적인 감성을 무기로 한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특성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서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 믿어 본다. **人間**

12월 12일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 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리더십의 본질과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비전

1379회 12월 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 병 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우리사회가 지식사회로 발전하면서 리더십의 본질도 변화하고 있다. 조직의 성격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뀌면서 리더십도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서 지식사회에 맞는 민주적인 리더십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이 형성될 때 그 조직은 발전적 비전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지도자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적 지지도를 기반으로 '혁신'을 화두로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노 대통령도 과거 정권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배격하고 시스템에 의해 당과 행정부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느슨한 장악' 전략이라는 리더십 방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혁신으로 대변되는 세대교체의 상징성과 변화의 이미지로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탄핵사태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등의 국가적 난제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국정 운영 방향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적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하에 풀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개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통령직인사위원회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며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지휘하고 있는 김병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초빙하여 노 대통령 리더십의 본질을 알아보고 여기에서 출발한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영남대 정치학과 졸업(1976)
- ▲ 한국외국어대 정치학 석사(1979)
- ▲ 美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1984)
- ▲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대학원 원장(1986-03)
- ▲ 美 델라웨어대 정치학과 연구교수(1989-93)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1995-00)
-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1998)
- ▲ 서울시 시민평가단 단장(1998-02)
- ▲ 제4대 경찰위원회 위원(1999-02)
- ▲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2002-04)

〈상훈〉 한국외대 2004 외대인상 하
〈저서〉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한국지방자치론,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 하



Korea Discount! 그 위기와 진단 및 극복방안

1380회 12월 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 성 용 베인&컴퍼니코리아 파트너

한때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절하 현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불리며 위기감을 조성했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이 심각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비단 하나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나 노사관계, 또는 북한의 핵문제 등의 표면적인 것에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고 고착되어 온 구태와 악습들, 비합리적인 사고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들이 '한국적인 부정적 요소'로 인식되어 한국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평균 30% 이상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 출판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성용 베인&컴퍼니코리아 파트너가 펴낸 〈한국을 버려라〉라는 책은 지난 10년 동안 100여개의 한국기업과 정부기관의 컨설팅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왜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실제 가치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지 경제적, 사회적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그는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맥킨지, 보스턴컨설팅그룹과 함께 세계 3대 전략컨설팅 회사로 꼽히는 베인&컴퍼니의 한국 파트너인 이성용 대표를 초빙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진단해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美 육군사관학교 우주공학과 졸업
- ▲ 美 남가주대 USC 정보기술 석사
- ▲ 美 하버드대 MBA
- ▲ 美 국방부, CSC Index, A.T. Kearney 근무
- ▲ 베인&컴퍼니 파트너 입사(2000)
- ▲ 베인&컴퍼니 코리아 대표(2002)
- ▲ 베인&컴퍼니 글로벌 디렉터

금융서비스·정보기술(IT)·구조조정부문 리더(현)
〈저서〉 한국을 버려라



부시 행정부2기와 한미관계

1381회 12월 16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양 성 철 고려대 석좌교수 / 전 주미대사

집권 2기 부시행정부의 대 한반도 진용이 강성인사 중심으로 짜이는 것과 맞물려 참여정부의 대미인식 및 접근법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미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과정처럼 한미동맹의 본질에 가까운 현안은 국내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위비분담협정(SMA)에 따른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협상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그 해법을 둘러싼 상호 인식차이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좁혀보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노대통령은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문제, 용산기지 이전문제, 이라크 문제 등 어려운 사안들을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해 왔다.”는 메시지로 전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서로의 속내와 전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6자회담 틀 속에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라는 수사에 도장만 한 번 더 찍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적 해결과 물리적 제재라는 해결책 사이에서 분명한 미국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참여정부의 대미정책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18대 주미대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양성철 전 대사를 초빙하여 최근 부시 행정부 2기의 출범을 앞두고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앞으로의 한미관계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1964)
- ▲ 美 하와이대 정치학 석사(1967)
- ▲ 美 캔터키대 정치학 박사(1970)
- ▲ 한국일보 기자(1964-65)
- ▲ 美 동켄터키대, 캔터키대 교수(1970-86)
- ▲ 美 캔터키한인회 회장(1976-77)
- ▲ 서울대 초빙교수(1986)
- ▲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1986-96)
- ▲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1993-94)
- ▲ 제15대 국민회의 국회의원(1996-00)
- ▲ 통일외교정책포럼 대표(1996-00)
- ▲ 주미 특명전권대사(2000-03)
- (상훈) 대통령 국가포상, 캔터키 주정부 최고봉사상 외
- (저서) 분단의 정치, 한국현대정치론, 물구나무서기 정치 외



한국농업발전과 농협의 역할

1382회 12월 23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정 대 근 농협중앙회 회장

한국의 농업발전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공급부족시대에 식량증산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증산농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촌은 식량생산기지로, 농업은 더 많은 식량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80년대 들어 상업적 농업경영의 확산으로 농업경영이 전문화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농정 기조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시대변화 속에서 농업은 상황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과거 공업발전의 단순한 보조수단에 머무르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농업의 성패를 가를 쌀시장 협상문제에 의해 우리의 농업은 큰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년 초에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또한 정부와 농협은 현장 농업인과의 괴리 등으로 농민과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아온 농협의 개혁을 위해 지난 7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협의 역할은 조합원 공동구매·판매사업과 조합원에 대한 지도, 교육 및 대외 홍보 등을 통해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대다수 농업인들은 농협이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농협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협은 농업 농촌을 위한 비전 제시와 함께 실천적인 현장경영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때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평생을 농협에서 근무하며 농협 발전을 주도해온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을 초빙하여 한국농업 발전사를 되돌아보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농협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동국대 경제학 석사
- ▲ 부경대 명예 경영학 박사
- ▲ 경남 삼량진농협 조합장(1975-98)
- ▲ 농협중앙회 운영위원(1987-90)
- ▲ 농림수산부 양곡유통위원회 위원(1988-89)
- ▲ 한국협동조합학회 이사(1989-97)
- ▲ 농협중앙회 상임감사(1998-99)
- ▲ 제18대 농협중앙회 회장(1999-00)
- ▲ 농민신문사 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1999-현)
- ▲ 통합 농협중앙회 회장(2000-현)
- ▲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01-03)
-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사(2001-현)
- (상훈) 새마을운동 협동장, 금탑산업훈장 외



2004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회고 그리고 2005년 전망

1383회 12월 3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유 장 희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정부와 기업 사이에 다소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나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과 과거와 비교할 때 위기상황이라고 말하는 기업의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출증가세 둔화와 건설경기 악화, 금리상승 및 환율절상, 유가급등 등 대내외적인 악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의 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성장세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4% 이상 성장에 예상되며 유럽연합 역시 느리기는 하지만 회복상태에 있는 상태이다. 일본은 10년의 불황에서 벗어나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경기과열진정정책을 쓸 만큼 성장세가 높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한국경제는 하강국면으로 향하는 ‘탈 동조화(Decoupling)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이 늘어 국내경기도 함께 개선되었다. 하지만 수출로 버텨오던 우리경제가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세계경제와 비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제로 보기보다는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장단기적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겸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유장희 부총장을 초빙하여 올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해 진단해 보는 동시에 2005년도 경제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63)
- ▲ 美 UCLA 경제학 석사(1969)
- ▲ 美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1972)
- ▲ 美 버지니아 콰모웰스대 경제학과 교수(1976-88)
-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1988-89)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1992-97)
- ▲ 한국협상학회 회장(1995-97)
- ▲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국제대학원장(1997-현)
- ▲ 한국 APEC학회 회장(1998-현)
- ▲ 동아시아경제학회(EASA) 부회장(2000-현)
- ▲ 한국경제학회 회장(2003-현)
- (상훈) 美 버지니아콰모웰스대 최우수교수상, 국민훈장 동백장 외
- (저서) 거시경제학, APEC과 신국제질서, 지식기반 경제 추진전략 외



제1375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2004년 11월 4일 목요일)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와 방향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왜 혁신을 해야 하는가?

참여정부는 과거정부와 달리 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지금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치가 없는 일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으라고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혁신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부터 자르면 처음에는 되는 듯 하다가 안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고객만족을 외치고 있지만 종업원들의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고객만족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종업원의 만족과 고객만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기업은 처음에는 성공한 듯이 보이나 나중에는 전부 실패한다.

“우리는 왜 혁신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다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보다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보다 좋은 나라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정권의 철학’, ‘정부의 철학’, ‘민족의 미래’, ‘국가의 미래’인 것이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후손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마구 벌리는 나라,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쓰고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불가능하다. 매년 경제성장률이 10%씩 되는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인가? 이것도 좀 의문스럽다. 조금 추상적이 표현을 해서 “역동적인 대한민국, 역동적인 나라를 물려주자.”라고 한다면 조금 말이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역동적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역동적이란 것은 각 분야별로 다르게 말할 수 있다. 가장 역동적인 나라는 창의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나라, 사전적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나라이다. 즉, 신분이동의 기회가 풍부한 나라이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 살면서 20리의 산길을 걸어서 건너편 산 밑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어렵게 대학까지 마쳐서 미국유학도 다녀오고 좋은 직장에도 다녀왔고, 교수 생활도 해봤고, 지금은 장관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의 학생이 나와 똑같은 환경에서 나처럼 나중에 장관이 될 확률은 거의 제로이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사회가 다소 정제된 부분도 있고, 뭔가 국가경영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한 단계 점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제개발을 거치고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가면서 우리사회에 역동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역동성이 보장되고, 신분상승의 기회가 사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소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측면에서 왜 혁신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자. “우리가 세계 1등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1등이라고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니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2등 국가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2등 국가로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기는 어렵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제정세로 보면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마냥 있다가는 2, 3등 국가도 되지 못하고 더 아래로 떨어지게 생겼다. 사회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중간에 낀 상태인데, 뭔가 노력을 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당위성, 환경, 미래의 비전을 감안할 때 혁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신문에 ‘공무원’ 하면 나오는 얘기들은 무사안일, 철밥통, 복지부동,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이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공직사회를 진짜 혁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직사회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혁신인가?

사실 혁신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정신이다. 다만 실천이 없었을 뿐이다. 나는 혁신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 혁신은 바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제도적으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다. 이것이 혁신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구체적으로 혁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격물치지(格物致知)’, ‘실사구시(實事求是)’가 혁신을 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실제에 맞고 편리하고 이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혁신은 절대로 쉽지가 않고 무척 어려운 일이다. 가족 ‘혁(革)’자가 들어간 용어 중에는 혁명(革命), 개혁(改革), 혁신(革新)이 있다. 혁명은 지배세력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개혁은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것이고, 혁신은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개혁과 혁신은 조금 큰 것, 작은 것의 정도로 구분하지 않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확실히 다른 점은 혁명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고, 개혁과 혁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대충 짐작만 되고, 전선은 엄청나게 넓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어떻게 혁신을 하고 있는가?

우선 혁신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발상의 전환’이다. 생각을 바꾸면 혁신이 가능하다. ‘신문가관 안 보기’는 100% 발상의 전환인 것이다. 과거에는 5시 정도면 신문 가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과장, 사무관, 공무원들이 가관을 받아서 자기들의 부처(部處), 국(局), 과(課)에 불리한 기사가 없는지 살핀다.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말을 바꿔달라, 빼달라.”고 하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



야 한다. 참여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나는 가장 먼저 신문기사를 보지 말라고 했다. 언론의 본래기능은 비판 기능이므로 정당한 비판은 우리가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된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한다. 그랬더니 기자들도 대단히 성실한 자세로 기사를 쓰고 정부측에서도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분기마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정책에 어떻게 수용했는가 하는 것이 각 부의 업무평가에 나타난다. 잘못된 것은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발상의 전환인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각 부처 사업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일일이 예산을 따졌다. 그러다 보니 각 부처가 예산편성에 몸이 달아서 예산편성 때가 되면 기획예산처의 주차장이 만원이 된다. 참여정부에서는 각 처의 총 예산을 정해주고 이 한도 내에서 각각 알아서 사업을 하게 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이 1조 9,000억이라고 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 각 실(室), 국(局)이 그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처 내에서 각각의 국(局), 부(部)들이 보기에는 예산확보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보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국(局)이나 부(部)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국장, 과장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나가서 차관, 장관을 설득시켜야 된다. 그러면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 사

업들은 기획예산처까지 가지 않고 그 부서 내에서 거절당한다. 그러면서 가치가 없는 일들은 버려지게 된다.

또 지방분권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수도권의 경쟁력'이다. 이 사실은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지 않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혁신 동력을 이끌어내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분권'이다. 분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인류역사상 권력투쟁의 역사는 "분권을 할 것인가, 집권을 할 것인가."의 역사이다. 일본의 명치유신은 분권에서 집권으로 가는 것이었고, 루이 14세의 경우도 강력한 중앙집권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분권이였다. 독일도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다리와 강을 하나 건널 때마다 세금을 내야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을 하는 것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다.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더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부산에서 사는 사람이 자식을 서울의 대학에 보내면 부산에 있는 아버지는 소주한잔 제대로 먹지 못한다. 자식 둘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면 1년에 최소 3,000만원이 든다. 수도권의 흡입력이 이렇게 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의 흡입력 때문에 지방은 지속적으로 피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것들이 국민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가슴에 와 닿는 혁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혁신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정책들을 리뷰(Review)하는 것이다. 우리 부처에서 리뷰를 통해서 없애버린 정책들이 여러 개 있다. 자전거 도로사업이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부산의 경우에 자전거 도로를 산에서부터 바닷가를 향해서 만든다. 그러다 보니 내려오는 것은 쉬우나 올라가기가 힘들다. 인도를 반으로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다보니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시키고 신도시를 만들 때 다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세 번째 방법은 민원 중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감사를 하면 반복적인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개선

하는 것이다. 국가의 경영시스템을 살펴보면 법을 만들 때 해서 안 되는 것만 정하고 가야하는데 법들은 전부 “이것, 이것만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법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집행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복적인 감사의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발부를 해서 금년의 경우 발부건수가 1,700가지 정도인데 이 중에서 300가지는 개선을 했고 나머지 1,400가지는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 개선하는 것은 전부 법을 고치는 사항이다. 이 부분은 차근차근 혁신을 해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방법은 ‘건전한 비판을 수용’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수용을 해서 각 부처의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 돈, 인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혁신은 정부부처 도처에 널려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는 전에는 각 과마다 방이 따로 있었다. 한 국장의 지휘를 받는데 직원들끼리 잘 모른다. 그래서 부서끼리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를 위해서 국별로 완전히 방을 터 버렸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효과가 생겼다. 예전에는 방마다 정수기가 있었는데 5개가 필요하던 것이 두개면 충분했다. 또 종이컵 한 개의 원가가 10원인데 전부 종이컵을 쓰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1년 종이컵 구입비용이 3,000만원이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컵을 가지고 다니게 했으며 손님용으로 5개 정도만 배치해 놓고 있다. 3,000만원이 절약되어서 1,500만원은 직원들의 복지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쓰고 있다.

민간부분보다 공직사회에서의 혁신이 왜 어려운가?

정부의 공공부분에서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공직에 있어보니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벌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일을 벌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행정부 산하에 ‘국가기록원’이라는 기관이 있다. 옛날에는 정부 기록보존소였다. 일종의 사고(史庫)이다. 기록을 잘 남기고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써 공직자들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6대조가 공직에 있어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후손들이 찾아보았을 때 기록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내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잘해보려고 일을 벌였다고 해보자. 가장 먼저 언론이 달라붙는다. 그러면 담당자는윗사람들에게 질책을 들어서 피곤해지기 시작한다. 또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시작한다. 일을 하기 위해서

는 돈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의원들이 또 걸고넘어진다. 일을 벌이면 결국 자기만 피곤해지고 또 일이 잘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역효과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장관이 밀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 과장은 국장이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국장은 차관이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이것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나타난다.

둘째는 대체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40세 이상이다. 40이 넘으면 될 수 있는 데로 현실에 안주하려 하고 편하고 싶은 것이다. 혁신 자체는 이상과 현실의 충돌인데 좀더 이상에 가까운 선택을 하면 혁신이 되기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나이 때문에 현실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된다.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처방은 ‘교육과 토론’이다. 조선시대에도 6조에서 결정을 하면 영의정, 좌의정들이 합의를 해서 임금에게 올려야 결론이 났다. 임금이 결정을 못 내리는 사항은 30~40명이 임금을 모시고 토론을 한다. 심지어 하루에 세 번 씩 토론을 했다. 한 왕조가 5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버텨올 수 있었던 시스템상의 장점이다. 우리가 계속 학습하고 토론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재 혁신이 잘 되 가고 있는가?

그 조직과 정부가 혁신이 잘 되어가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다.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다. 기업에서 스카웃하고 싶은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혁신이 잘 되는 것이다. **人間**





재미 한국인의 성공신화

김창준 고려대 연구교수 / 전 미연방 하원의원

‘현재 한국이 맞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통한 경제개혁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치권의 개혁을 통해 경제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 한국인의 성공신화로 불리는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이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견해이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간 김 전 의원은 90년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 시의원과 시장을 역임했으며, 92년 한국인 최초로 미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3선을 지냈다. 이런 그의 활동은 미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근대사편에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로 소개되는 등 한인 교포사회의 ‘희망’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99년 정계에서 은퇴하고 최근 들어 고려대 동북아경제경영연구소 연구교수로 위촉되어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43년간의 미국 생활을 통해 얻은 정치, 경제적인 경험과 지식들을 한국사회에 알리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지닌 김창준 전 의원을 만나 미국을 통해 본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한편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김창준 고려대 연구교수 / 전 미연방 하원의원

1939년 생 / '61 渡美 / '67 美 남가주대 토목공학과 졸업 / '73 美 남가주대 환경공학 석사 / '80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행정학 박사 / '77 제이 킴 언지니어링 설립 / '90~91 다이아몬드바시 시의원, 시장 / '92~99 미연방 하원의원(3선) / '03~현 고려대 동북아경제경영연구소 연구교수

의원님께서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고려대 동북아경제경영연구소에서 국내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먼저 근황부터 좀 들려주시죠.

1999년 말 미국 정계를 은퇴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지내다가 작년 2학기부터 고려대 동북아경제경영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미국에 집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강연을 하지는 않고 우선 경영대학원이나 국제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대학에서도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에 강연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미 연방의회에 진출한 첫 번째 한국인이었고, 사업이나, 시장, 시의원도 하면서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큰 관심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제가 가진 그 동양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물 안 개구리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이나 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거든요. 멀리서 보는 한국과 한국 안에서 한국을 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관련된 정치, 경제적 학술정보를 국내에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국내기업의 미국진출을 돕겠다는 계획도 밝히셨는데요. 현재 한국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회생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한국경제가 어려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든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우리기업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불과 30년 전에는 저가의 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했지만 이제는 가격경쟁이 아니라 품질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제품들은 현재 세계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선진국의 제품들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이 좋다는 것이죠. 문제는 국내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경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초선 의원 시절 중소기업분과위원회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돈으로 돕기보다는 일을 줘서 돈이 필요하게 해야합니다. 어느 사회든 중산층이 폭넓게 형성되어야 민주정치가 살고 자유경제체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산계급이 많이 붕괴되었어요. 한국은 현재 아주 부자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로 극단적인 사회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 안에서는 민주정치가 살아날 수 없죠.

그리고 이제는 경제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국내에서조차 소위 돈 되는 사업들을 대기업에서 장악하고 있으니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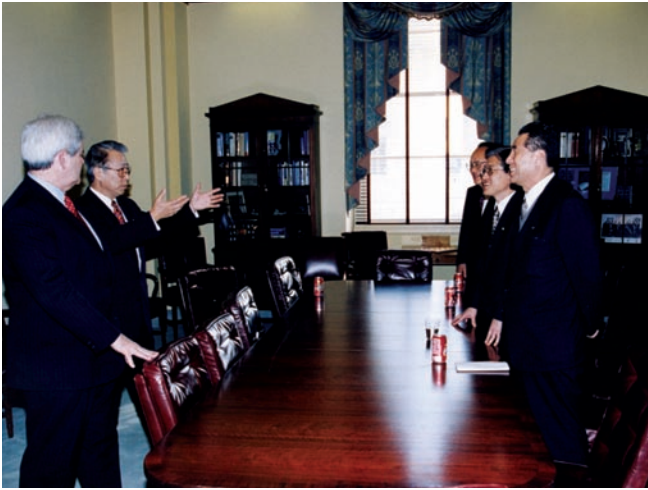
다.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국가발전도 어려워요. 대기업들은 세계 무대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니 국제무대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사업 분야는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산계급이 강화되면 경제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개혁’과 ‘혁신’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개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체제로는 더 이상 힘들다는 것이죠. 그 동안 정경유착, 투기, 부정부패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사를 들추는 일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의 방법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개혁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의 중심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개혁에 앞서 우리는 정치적 개혁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의 정치개혁만 일어난다면 국민들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회의원의 ‘임기제’를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상원의원을 두 번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4년씩 길어야 8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눈치



만 보며 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직업화로 생각하기보다는 서비스직으로 여기고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야지 하나의 권력으로 여기는 풍토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러한 법이 통과되기 힘들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 도출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삼권분립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하는 일들은 잘못되었습니다. 국회의 의무 중에 하나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인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관을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또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일꾼으로 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천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당에서 공천을 주는 당 중심의 정치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요원해 집니다. 그래서 공천의 권리를 당이 아닌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가들이 당에서 공천을 못 받게 되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여기고 중앙에만 모여들어 정당에 아첨하는 행태는 분명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부시집권 2기를 기약하며 끝이 났습니다. 향후 한미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와 더불어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진단해주시죠.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부시는 초선에 비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더구나 상·하원 의석수도 공화당의 압도적인 우세로 끝이 났습니다. 몇 십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것은 미국 국민들이 정부에게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치라는 지원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시가 집권하게 되면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전망하는 보수세력의 걱정처럼 한미관계는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과거보다 거리가 생긴 것도 사실이고 한국보다는 일본과 가까워지긴 했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라크 파병 등으로 여전히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한미관계에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성명은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아주 잘한 일입니다. 또한 이번 회담은 부시 재선이 확정되고 처음 만나는 회담이라는 점과 두 나라 모두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통점을 확인한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어요. 그러나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두 나라보다 북한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 동안 우리의 외교는 북한에게 양보할 것만을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선제공격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우리에게 만족할만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로 하는 등 양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북한은 현재 6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을 테러국가에 팔지 말라는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레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부시는 테러국가를 옹호하는 국가도 테러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겠다는 나라나 팔겠다는 나라나 레드라인을 넘으면 무력행사를 할 것이란 뜻이죠. 여기에서 방법은 단 한 가지로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미국에게 강경책만 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미국이 포기할 것, 양보할 것이 없는지를 살피고 이를 북한에 제시해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교도 비즈니스와 같은 것으로 북한에게 미국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북한도 양보를 하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외교팀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워만 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북한에게 이야기조차 할 수 없어요.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방법 또한 스스로 붕괴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보여주는 등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계가 북한의 현실을 인식할 것이고, 북한은 점차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내년 초 6자회담을 통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북핵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그래서 내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저희 연구원이 내년 2월 5일로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형성', '리더십 대학원 대학교 설립' '밀레니엄 경영자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연구원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동안 세계에 대해 눈을 뜨기보다는 자아 도취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편 한국을 한국 안에서만 보려 하지 말고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연구원의 30년 역사에 감히 조언을 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리더십 교육', '밀레니엄 포럼' 등과 같은 연구원의 진취적인 사업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세계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연구원의 활동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경영자연구회'를 비롯해 '지방자치 아카데미'에서 여러 차례 강연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무래도 미국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좀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물론 나쁜 면도 있겠지만 우리와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중앙정부가 먼저 생기고 여기에서 도지사나 시장을 파견하고 임명해왔어요. 그러다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선거를 통해 각 단체장들을 직접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방정부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중앙정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도 지방자치 10년을 거쳐오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지방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차 전체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 동안 <나는 보수다>, <국산정치 미제정치> 등의 책도 집필하셨습니다. 간단한 책 소개와 함께 향후 후학들을 위한

집필계획은 있으신지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몇 권의 책을 쓰기도 했었는데 <나는 보수다>, <국산정치 미제정치>는 국내에서 출판된 책들입니다. <나는 보수다>라는 책은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미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와 과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어떻게 보수적인 공화당에 입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재미있고 읽기 쉽게 썼어요. 반면 <국산정치 미제정치>는 다소 학술적인 서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치제도를 분석하고 비교해서 썼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제도를 삼권분립부터 헌법, 진보와 보수의 정의, 미국의 보수와 한국의 보수의 차이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접근하기 쉽지 않은 주제들이지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편 미국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며 헌법의 탄생과정을 알려주고 지방자치 생성단계로 텍사스의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울 점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미국 시스템 연구용 책을 펴낼 생각입니다.

요즘도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데요. 평소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면서 지내는데 한국에서는 1년 중 3~4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시간의 여행이 많고, 몸이 피곤해지기 마련인데 다행히 아직은 아무 문제없이 건강한 편입니다. 평소 꾸준히 헬스클럽을 찾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유일한 건강관리법인데 아무래도 집안내력으로 인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인간개발연구원을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연구를 이끌어오시는 장 회장을 생각하면 존경심이 앞섭니다. 우리나라에는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미국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인간개발연구원이 뭔가 특별한 것, 독특하게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인간개발연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에서 연구원이 그 동안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노력 덕분에 입지를 굳혀 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한국사회발전에 충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기관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한국적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

유 무 중 다 야 몬 드 치 재 (주) 회 장

‘누군가에게 고기를 잡아 주면 하루를 배부르게 보내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배부리 보내게 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치과 전문가들이 인정한 최고 품질의 근관 치료제품, 소모품과 치과기구 등 다양한 치과 관련제품을 국내시장 및 전세계 102개국에 ‘DiaDent’라는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Endodontics 관련제품 전문 제조업체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지만 1985년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해당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특히 ISO9001과 EN46001로부터 생산제품, 기술측면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CE마크를 획득하여 전세계에 한국제품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외국의 다양한 기부문화는 신선한 충격

우리 사업은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에 평소 해외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해외를 오가며 여러 경험들을 하는 가운데 내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외국의 기부문화였다. 물론 평소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꿈꾸던 나였기에 한국의 기부문화와는 큰 괴리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서구 사회가 보여주는 기부라는 문화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기부를 유도하고 참여하는 방식 또한 나에게 매우 낯선 것이었다. 기부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이벤트와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시스템 등 분명 양적, 질적으로 우리의 기부문화와는 다른 것이었다.

한국사회에서의 기부문화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며 장학재단 등을 통한 큰 줄기의 제한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개인적인 기부의 모습도 일시적인 기부와 연말 연시의 단발성 기부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기부는 마케팅 감각을 가진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

이런 현실을 보며 기부에 대한 관심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중 6~7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그 첫 시작으로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던 중 북미주 한인 대학생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유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캐나다 한인 교수와 교포, 사업가들이 기부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좋은 뜻으로 시작된 이 재단은 2~3년 후에 문을 닫게 되었다. 기부라는 좋은 뜻으로만 모였을 뿐 어떻게 기부금을 조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부금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비전문인들이 만든 단체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 기회였다. 이 일을 계기로 기부문화를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아무리 좋은 뜻을 담고 있어도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이 없다면

유무중 다야몬드치재(주) 회장

1934년 생 / '59 서울대 중문과 졸업 / '62~'64 국제문제연구소 / '65~'67 옴니컴, 인터내셔널 / '73~'84 한국 슈어 프러덕츠(주) / '85 금강치관산업(주) 설립 / '91~현 다야몬드치재(주) 회장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과 기부야말로 마케팅 감각을 가진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주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분석, 기부금을 조성하는 방법과 그 기부금을 탄탄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전문가들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기부에 대한 보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다.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문화 도서관의 출범

그런데 4년여 전 '아름다운재단'이 출범하면서 인연을 맺고 박원순 변호사에게 나의 뜻을 전달하면서 아름다운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내 철학을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의 1%나누기에 동참하는 한편 기부금을 조성하는 전문적 지식을 양성할 수 있는 자료와 책을 기부하게 되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기부금을 내기보다는 그 동안 익힌 마케팅 감각을 기부금 조성사업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외 출장 때나 각종 기부 관련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틈틈이 구입한 서적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작된 내 뜻이 작년에는 그간 모아진 자료로 도서관을 만들자는 의견에 따라 '유무종 기부문화 도서관'으로 명명되어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도서관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요즘도 일주일에 두 세 번 도서관을 꾸준히 찾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모금 관련 단일 자료실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것이다.

현재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내가 기증한 자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재단에서 구입하여 공부했던 서적,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기증한 책들로 차곡차곡 쌓여 국내의 도서자료만 400여권, 기타 자료 및 학술지, 정기간행물 수 백여 종 등이 구비되어 우리 기부문화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 도서관에서는 자료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모금 관련 서적 번역 및 출판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총서'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으며, 국내 비영리모금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는 모금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무자를 미국 등에 보내 훈련을 받게 할 계획이며, 국내에서도 전문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에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인재양성에도 노력할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NGO가 수천 개에 이르는데 이 중에 경제적 자립도를 지니고 있는 곳은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없다. 이들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기부문화의 올바른 정착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절충할 줄 아는 합리적 삶의 방식

사람이 평생을 걸쳐 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법. 둘째는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마지막은 자신이 기부한 재산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다. 어떤 것을 극단적으로 옹호하거나 선호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자식을

통해 기업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며,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나눔의 지혜도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기부한 돈이 사회에 제대로 쓰이는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다만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운 절충을 할 줄 아는 삶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경영자로서 한국적 기부문화 형성에 기여해나갈 것

앞에서도 밝혔지만 경영과 마찬가지로 기부문화에도 마케팅 방식이 도입되어야만 전문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30여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로 어느 정도의 '성공'이란 길에 접어들었지만 절충할 줄 아는 삶의 방식을 깨달아가고 있기에 경영자로서의 보람도, 한국 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듯 하다.

우리 민족은 상부상조라는 좋은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 속에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을 추가하여 소중한 나눔의 전통에 실용성이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적 기부문화 형성에 나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많은 경영자들이 관심 가져보기를 바란다. 人間



▶ 다이몬드치재(주)에서 생산하는 치과치료제품 1



▶ 다이몬드치재(주)에서 생산하는 치과치료제품 2

2004,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재도약기 그 한 해를 되돌아보며

본 연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인류평화와 국가번영, 그리고 개인행복을 누리도록 개인과 가정,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성과과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Better People Better World)”는 연구원의 신념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간개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은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다가올 30년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재도약기로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펼친 한해였습니다.

이에 2004년을 마감하는 12월호에 연구원에서 1년 동안 전개한 중요한 사업들을 재정리하고 연구원 스스로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상반기

창립 29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황장엽 선생 초청강연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열린 2월 5일 특별세미나는 제133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겸한 자리였다. 이날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현 탈북자 동지회 명예회장)는 ‘북한 민주화의 기본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조갑제 조선일보 대기자, 신일철 고려대 명예교수,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이종훈 동아시아 경제포럼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황장엽 선생은 민족적 과제에 대한 노철학자로서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길림성 연변자치주 정치·경제지도자 초청 한·중 경제협력세미나



4월 22일 제134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서는 중국 길림성의 왕운곤 당시기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길림성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방한해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과제

와 전망”이란 주제로 ‘중국 동북로기 지 진흥 및 연변 경제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인들에게 설명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는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차이나클럽에서 주관하면서 국내기업들의 중국진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로 마련되어 회원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제1회 한·일 국제노동포럼 실업대란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란, 특히 청년실업이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원은 지난 5월 13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1회 한·일 국제노동포럼’을 개최하여 교육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보다 입체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실업대란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의 기노우찌 히로미찌 (주)학생후원회 이사가 ‘일본 노동시장 서비스의 현황과 고용관행의 변화’라는 주제발표와 이원택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당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한국의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패널들의 토의형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경영자 독서아카데미 「로마인이야기 리더십 과정」 개강



연구원에서는 기업 및 조직경영의 지침서로 애독되고 있는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 로마인들의 지혜와 전략을 배우고,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인간, 조직, 국가경영의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 매경인터넷과 공동진행으로 로마인이야기 리더십 과정을 개강했다. 2월 17일~3월 23일까지의 1기와 4월 29일~5월 13일까지 2기가 진행된 독서아카데미에서는 공병호 자기경영연구소 소장, 배동만 제일기획 사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이 강사로 초빙되어 경영자들의 독서문화와 리더십을 배양하는 장이 되었다.

YOUNG CEO FORUM(YCF) 발족



본 연구원에서는 디지털 세대 경영자들에게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영창출과 신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선배경영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학습하면서 정기적인 포럼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해 'YCF'를 1월 27일 정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회장 김상래 (주)성도GL 사장 / 부회장 최석태 M&N 홀딩스(주) 부회장)

하반기

제24회 밀레니엄 경영자 제주 섬머포럼

한국 경제성장의 뉴패러다임과 상생화합의 문화창조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밀레니엄 경영자 제주 섬머포럼'이 7월 21일~24일 동안 제주 샤인빌리조트에서 국

내외의 100여개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섬머포럼은 이희범 산자부 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배동만 제일기획 사장 등 기업 CEO, 황우석 서울대 교수,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등 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우리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한국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아름다운 땅 제주에서 가족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을 벗삼아 경영에서 쌓인 피로도 함께 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학습과 휴식을 병행하는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제1회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스 네트워크 포럼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경제의 세계화



본 연구원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Global Koreans Network'의 발판을 마련하고 한민족 기업인들의 상호 대화의 장을 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스 네트워크 포럼'을

지난 11월 2일 개최하였다. 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하여 준비한 이 행사는 국내 대중소기업인 및 해외동포 기업인 100여분이 참석하여 재외동포기업들의 사례를 통한 국내외 기업인들의 비전수립과 발전방향,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 등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하동군 '평사리 황금들판 문화축제' 공동 주최 '1사 1촌 자매결연'



경남 하동군과 연구원은 지난 10월 9일 녹색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쌀 사랑의 의지를 다지는 농촌문화축제를 공동 주최하면서 기업과 농촌 마을을 이어주는 '1사 1촌 결연'을 주

관해 우리 기업의 농촌사랑 실천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참존, 롯데칠성음료, 삼립식품 등 10개 기업이 하동군 읍·면 지역과 향후 상호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의 쌀 나눔 택시봉사대 '사랑의 쌀' 전달식



본 연구원은 추석을 맞아 노인공경 '사랑의 쌀 나눔 택시봉사대' 발대식과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지난 9월 23일 주최하였다.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새 모델을 창출하고 택시기사들이 사랑의 실천을 체험하며 그 보람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여 공동체 의식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 초청 문화예술인 팸투어



본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40여 곳의 지자체에서 교육을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3일~24일 양일간 태안군청 초청으로 '문화예술인 팸투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태안을 홍보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작품과 사회활동 속에 태안군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연구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소금굽는 사람들

태안군 초청 문화예술인 팸투어

김진희 (주)ESODO 사장



태안에 가면 햇볕에 말린 갯벌 흩을 바닷물로 걸러 가마솥에 끓여만든 자염(煮鹽)이라는 전통소금과 만나게 된다. 태안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 먹던 소금 생산방식을 복원하여 쓰지도 뺏지도 않은 순하고 맛있는 소금을 제조하여 지방특산물로 선보이고 있다.

태안가는 길은 서해안 고속도로 덕분에 이제 가벼운 나들이 길이 된 듯 싶다. 태안은 동쪽으로 서산시와 연속되어 있으면서 3면이 바다로 둘러져 530.8km라는 긴 해안선을 그으며 자신의 나라를 본떠서 반도를 형성하고 있다. 백화산 줄기로 뻗어 내린 118개의 섬들이 점점이 흩어져 서해로 315km 물길을 넘으면 중국 산둥반도에 이르게 된다.

이 가을의 끝자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10월 마지막 토요일 아침, 양재환승역에 모인 '태안군 초청 문화예술인 팸투어' 일행은 서로 이름만 듣던 오랜 지인들을 만나 반가운 악수를 나누며 일상탈출의 시동을 걸었다.

드디어 시원한 천수만의 풍광이 펼쳐지는 B지구 방조제! 태안의 입준식 안내원이 들려준 '쌀 썩는 여'의 전설은 차라리 최근 우리들이 겪어온 불행한 역사의 단면을 보는 듯 부끄럽다.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험한 뱃길로 세곡(稅穀)을 운반하던 선박이 안면도에 이르면 자주 암초에 걸려 난파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곤 했다. 실태조사에 나선 관원은 인명피해가 없음을 다행으로 여겨 문책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세곡선의 감독관은 고의로 암초에 부딪쳐 난파를 위장하고 세곡을 마구 빼돌리니 사람들은 이곳을 '쌀 썩는 여'라고 불렀다는 것이

다. 안면을 창기리, 부석면 창리라는 지명은 그곳에 세곡을 보관했던 창고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은 태안은 만리포, 몽산포, 연포, 학암포 등의 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해수욕장과 정겨운 포구들이 어울려 있어 저마다 지난 어느 날의 추억을 반추하게 한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에는 경북궁 중건에 사용했던 안면송이 적송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 이 숲은 국내 유일의 자생 소나무 숲으로 26,000본의 우리 소나무가 안면도의 해양성 기후와 돌이 적은 토질 덕분에 '옹이없는 키 큰 나무'로 성장하여 내륙의 소나무 숲과 비견되고 있다. 갯벌조사에서 한국인의 44%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 소나무! 우리 숲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소나무'가 환경재해로 인해 불과 7~80년 후에 멸종할 수도 있다는 조사보고가 나와있다.

소나무 산림학자 전영우 박사를 따라 HD다큐멘터리 <늘 푸른 소나무> 연작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는 프로듀서로서 한 그루 한 그루 안면도 소나무와의 만남은 늘 새롭고 감격스럽다. 솔바람으로 휘감아 주는 맑은 솔내음, 붉은 나무등걸의 미덥고 싱싱한 체감! 눈을 들어 올려보면 펼쳐진 푸른 솔잎관 사이사이로 가을하늘 드높이 하얀 구름이 흘러간다.

산림전시관, 산림수목원 등 광대한 숲 속 정원을 돌아보며 2002년도 4~5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개최된 국제꽃박람회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꽃지라는 예쁜 지명이 떠올려준 태안의 세계적 프로젝트! 그 안에는 꽃보다 다양하고 화려한 태안의 비전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시간관계로 가볼 수 없었던 야생화식물원과 패총박물관 대신 신두리

김진희 (주)ESODO 사장

1936년 생 / '63 고려대 국문과 졸업 / '77 고려대 신문방송학 석사 / '98 고려대 신문방송학 박사 수료 / '64 (주)문화방송 입사, 25년간 라디오, TV프로그램 다수 제작 / '88~'94 (주)문화방송 교양제작국 국장 / '95~'02 서울예술대 방송학과 교수 / '96~'02 미디어여성연합 공동대표 / '97~현 (사)영상창조연구회 회장 / '01~현 한국문화콘텐츠학회 문화원형정보과위원장, (주)ESODO, (주)ESODO SRC 사장



▶ 태안 해안유람 마친후 기념촬영



▶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기념촬영



▶ 태안 천리포수목원내 연못

해안사구에 대해 화제를 바꿔본다. 고종남 문화관광과장의 안내로 우리는 사막처럼 펼쳐진 넓은 모래벌판으로 걸어나갔다. 이곳 신두리 해안사구는 빙하기 이후 1만 5천년의 세월을 쌓아 형성된 사구로 짐작되는데 강한 바람에 모래가 파랑에 쓸려 해안가로 옮겨지면서 거대한 모래언덕을 이루어 놓은 것으로 육지와 바다의 원충지대에 쌓여져서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부터 농토를 보호하고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이곳이 전국최대의 해당화 군락지였다고 귀띔해준다. 그리고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여기서 발견되었다고 풀이름을 일러주었다. 역시 다큐멘터리 약초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태안군 인터넷넷을 찾아보니 독특한 희귀식물 분포도가 나타났다. 통보리 사초, 모래지치, 갯완두, 갯매꽃, 갯방풍 등...

그러나 수만 년의 시간과 자연의 위력이 빚어놓은 장관인 신두리 해안사구가 불행하게도 인재로 인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치솟는 땅값의 지주(地主)들에 의해 번번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태안군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내셔널트러스트사업으로 전국민이 한 뼘씩 사주는 운동은 동강만의 사업이 아닐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소유의 경제에서 체험의 경제로 변화하는 세기의 시점에서 서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보존과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신개념의 선택이 화급한 과제로 던져진다.

태안8경의 첨미는 할미, 할애비바위의 일몰풍광이다. 주말이 아닌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붉은 태양이 바다 속으로 빠져드는 황홀한 순간을 지켜본다. 일행인 최낙경 화백이 화판을 펼친다. 풍광만큼이나 아름다운 전설이 한편의 드라마가 되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오래 전 전설따라 삼천리에서 전국 방방곡곡의 전설을 찾아 방송하고 지금은 “HD 다큐라마 Korea Fantasy 전설 1000”을 제작하고 있기에 그 이야기가 각별한 만남으로 다가온다. 아마도 할미바위가 할애비바위보다 큰 모습으로 솟아있는 것은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여성성을 숭배하던 옛 선인들의 민속신앙의 일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태안의 밤은 저물고 갯벌에서 걷어온 대하, 꽃게 말고도 이름도 처음 듣는 갯게미, 박하지, 봉자어 등 갖가지 해산물 잔칫상을 받고는 모두 어린이들처럼 즐거워했다. 밤에 랜턴을 들고 나가 민꽃게도 손으로 잡고 골뱅이, 고등들을 주울 수 있다니... 어린 시절의 이런 추억

들이 어른이 되어 ‘갯벌’ 다큐멘터리를 최초로 제작하여 국내외로 무려 7개 방송대상을 받은 갯벌소년 프로듀서를 알고있기에 더 흥겨울 수가 있었던 것일까?

다음날 아침은 태안을 백화산 증턱에 등정하며 마애삼존불을 만나 보았다. 보살입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여래입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문화유산 해설사 명수남 옹은 만들어진 솜씨로 보아 6세기 초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드디어 서해의 실크로드 안홍 앞바다의 섬들을 둘러보는 배가 안홍항을 출발했다. 태안 제6경인 가의도를 볼 때까지 죽도, 부억도, 목개도, 정족도와 사자바위, 독립문바위, 거북이 바위 등 바다의 장관이 퍼레이드를 벌인다. 제철이면 원추리꽃으로 뒤덮인다는 궁시도, 충남 유일의 유인등대지기의 섬 옹도, 갈매기의 천국 란도, 가마우지들이 자맥질을 하는 정족도, 아담한 백사장이 나그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의도에서는 소박한 마을사람들을 만나 잡아 올린 해산물을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섬들은 바다처럼 생명력이 넘쳐있고 찾아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전달해준다. 만남이 무르익으면 화기에에 즐거운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모른다. 귀경길이 늦어져도 아랑곳 없다. 그래도 故 민병갈 원장이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수목원, 천리포수목원은 반드시 들려야 했다. 가을이 짙어 가는 수목원에서는 어인 일로 두 날개 펼치며 한 마리의 학이 내려와 춤을 추는가? 의상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농촌 체험휴양협회 정준 원장의 학춤공연에 박수를 보낸다. 천리포수목원을 떠나며 전지로 잘려진 보리수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정호문 월북 화백에게 전해드렸다. 초록색과 연두색이 절묘하게 채색된 나뭇잎 하나! 천재적인 자연의 디자인을 어느 예술가가 넘볼 수 있을까?

태안여행은 주마간산(走馬看山)이라 아쉬웠지만 여행의 참 기쁨은 주마간산의 순간들에서 편린으로 남는 것! 다시 한번 소중한 만남들을 되새긴다. 태안의 어느 분은 안면도 초가집 종가에 벌써 4대째 자손들이 태어난 방이 있다고 했다. 뒤뜰에는 감나무가 있고 앞뜰에는 앵두나무와 채송화, 맨드라미, 백일홍이 심어져 있다고. 그곳이 태안 어디쯤인지 반드시 촬영허가를 받아 영상에 담고 싶은 곳이다.

태안의 사람, 사람들은 한결같이 ‘태안 자염’ 처럼 태안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가꾸어 내일의 풍요로운 태안을 만들어가는 <소금굽는 사람들>이다. **人間**

리더의 품격과 문화 향기

탁계석 리더스컬처클럽 대표 / 음악평론가



지난 달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는 한 달 이상 국제 오페라축제가 열렸다. 평론가인 필자는 매번 바뀌는 작품 평가를 위해 여섯 차례나 출장을 했다. 오후 5시 15분 KTX를 타고 7시 3분에 도착해 2시간 남짓 오페라를 보고 다시 10시 40분 막차를 타고 서울로 온 적도 있다. 번잡한 도심을 헤

치며 강남, 강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세상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오페라 기간 내내 아쉬웠던 점은 이 같은 최상의 고급 문화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리더와 문화가 체질처럼 되어있는 유럽 등 선진국과 우리가 크게 다른 환경에 있음을 말한다.

깊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꽃피우지 못하는 문화현실

왜 우리는 유독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권한과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급문화와 반비례하는 것일까. 이는 예술의 전당에 초대권을 달라고 압력을 행사하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심지어는 높은 법관이나 권력 상층부 등 특권층 비서들

이 '울고 넘는 박달재'나 비슷한 대중 오락물엔 초대권 내놓으라고 으름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오페라나 발레 표를 달라고 하는 적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50~60대는 초대권을 받아야 신분 대접을 받는다는 과거의 관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세분화되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순수 예술은 풍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한다.

사실 명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따라서 명품을 디자인해 만들어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하는 기업의 리더들이나 사원들이 名品の 어원인 '명화작품'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계인을 설득하는 칼라감각과 창의적인 디자인이 수능 점수로 일류대학에 간 머리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문화컨텐츠가 산업의 한 장에 편입되고 한류열풍이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언제까지 흘러간 '쥬라기 공원' 영화 한편과 자동차 수천 대의 비교 효과만 측정하고 있을 것인가.

문화지수의 답보는 과거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싫던 좋던 사회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세대가 달라지면 입는 옷도,

탁계석 리더스컬처클럽 대표 / 음악평론가

국립극장 자문위원 역임 / 비평그룹 21세기 문화광장 대표 /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이사 / 한국음악협회 부회장 / 세종문화회관 자문위원 / 전국 10개 아버지합창단 창단 / 신문 방송 칼럼, 해설이 있는 Salon Concert 진행 / 문화동창회 등 기업 문화행사 자문 / 현 리더스컬처클럽 대표

먹는 음식도 달라진다. 모든 것이 감성으로 흐르고 이미지로 구매력을 만들어 내는 세상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요즈음 주요 공연 관객층의 70~80%가 20~30대로 바뀐 점이다. 또 하나의 기대는 과거의 음주문화, 향락접대도 크게 바뀌고 있다. 기계적인 산업화와 군사 억압시대의 산물인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람들은 독한 술을 마시고 금기된 향락을 즐겼다. 양질의 고급문화를 즐길 이렇다 할 학습도 없었고 그럴만한 여유도 없었다. 예술 교양이란 고작 중·고등학교 시절 배운 것이 전부였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직장 다니며 먹고살기 바쁜 일상에서 문화란 사치로 여겨졌을 뿐이다.

그나마 인방을 차지한 드라마가 국민적 중독을 일으킬 만큼 폭발적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적인 상황일 뿐이다. 뻔한 통속적인 이야기를 값싸고 편하게 즐기는 동안 그보다 훨씬 깊이 있는 감동의 예술이 잠들고 있는 것이다. 의식주의 생활은 한 차원 높아졌는데 국민 문화지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직도 20~30년 전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의 리더들이 여전히 과거 문화관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시절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이어 받은 개발 도상의 주역들이 피땀으로 경제를 일군 덕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는 되었지만 한편에서 놓친 것이 즐기는 여유가 아닐까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계적 인간이 아니다. 창의력은 잘 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규격화되지 않은 유연한 사고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잘 노는 사람이 큰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놀고 있는가 되돌아보면 우리 프로그램은 너무 유치하거나 단조롭기 그지없다.

이제 일 중독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를 느끼며 보다 창조적이고 고부가가치적인 일을 해야 하는 변화가 왔다. 주 5일제는 바로 여가문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으로 훈련되지 않는 여유와 시간은 곧 고통이자 갈등이 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기업의 건강함이 가정의 안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 아래 단절되거나 붕괴되고 있는 오늘의 가정문제를 기업이 돌아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장인들은 바빠서, 기성세대는 익숙하지 않아서 문화를 외면한다. 때문에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공급을 기업의 복지차원에서 프로그램화하면 어떨까.

바람직한 문화모델 만들기는 사회리더들이 앞장서야

필자는 '리더스컬처클럽'을 이끌며 음악과 그림이 만나는 갤러리 살롱 콘서트를 해오고 있다. 건전한 사교문화의 대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나 동창회 등을 '문화동창회'로 바꾸는 것이다. 매일

똑같은 형식의 회식과 술좌석을 옮겨 다니는 음주와 노래방 문화의 반복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획일적인 문화에 갇혀져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제 세계가 하나인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사교문화도 부정적인 한국형 룸살롱이나 향락 접대가 아닌 파티 문화의 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살롱 콘서트를 열고 있다. '살롱(Salon)'이란 원래 17세기엔 귀족 왕후들의 궁정에서 교양 높은 사교문화의 장이었고, 18세기 이후엔 드뷔시, 브람스, 슈베르트 등 예술가들이 대화하는 고급문화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척박한 우리환경에 들어오자마자 본질은 사라지고 왜곡된 '룸살롱'으로 전락한 것이다. 댄스문화도 춤이라 하면 곧 춤바람을 연상시켜 오랫동안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지다 근자에 와서야 '스포츠 댄스'란 이름으로 사면복권 되었다. 인간의 순수한 욕구가 제대로 의 문화가 없어 변질되고 왜곡되는 현상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문화를 생활화해야 하고 그 바람직한 모델 만들기를 위해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주어야 한다.

가정이 학교고, 부모가 일생의 교사인 점을 생각한다면 그림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떤 문화를 전달받을 것인가. 부모의 문화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기라성 같은 훌륭한 아티스트 한 두 사람 배출했다고 문화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불안과 경제공황이 와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정신적 깊이를 가지는 동구권의 저력이 부럽다. 아무리 돈이 많은 중동 산유국을 우리가 선진국으로 보지 않듯 오로지 권력 집중의 획일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권력의 역기능은 무섭다. 다양성이 존재하고 국민 각자가 남과 단순 비교하기보다 개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문화를 보는 안목과 식견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 아파트들이 대형화하면서 벽걸이 TV가 그림을 몰아내고 있다고 한다. 어느 집이나 정형화된 배치의 구조가 아니라 주인의 품격과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조각이나 그림 한 점이 없다면 이 역시 고도성장의 한계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리더'를 정의하는데 여러 덕목이 있을 것이다. 리더십이 사회의 화두가 되어있는 때에 참 리더를 정의하는데 '리더는 향기'란 항목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멀리서 보아도 은은히 몸에 베어있는 문화 체취와 향기야말로 말로는 설명 못할 설득력이요 리더십이 아닐까. 소니 회장이 베를린 필을 지휘했다는 소식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기업 리더들이 최상의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모습은 이미지 재고와 신뢰를 주기에 충분하다. 문화는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력에 있다. 한국의 리더들이 세계 사교장에 나가 문화 식견으로 그들을 놀라게 할 날은 언제쯤일까. **人間**

회원소식



• **여성신문 우먼타임스 'e비즈니스센터' 개설**

온·오프라인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 여성신문 우먼타임스(발행인 신숙희)는 지난 11월 24일 온라인 여성창업을 위한 'e비즈니스지원센터(www.mizinfo.com)'를 오픈하였다. 이 사이트는 창업에 관한 기초교육부터 상품 소식, 쇼핑몰 구축은 물론 전자지불, 세무 특강 등 여성 온라인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창업지식을 제공한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은** 지난 11월 23일 YCF(Young CEO Forum) 송년모임에서 '걸작품 CEO의 새 경영마인드'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11월25일 흥사단 서울본부에서 '종이위에 쓴 기적'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은** 지난 11월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기독교실업인회 아시아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재추대되었다. 따라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45개국 36억 아시아 CBMC(기독교실업인회)를 운영 관리하게 되었다. 향후 2년간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2005년 CBMC 제75차 세계대회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도록 주관하며, 둘째는 2006년 제17차 아시아대회를 대만에서 개최하는 일이다.

• **유한양행(대표 차중근 · www.yuhan.co.kr)**은 지난달 8일 "비타민B·C 복합제인 뼈곰씨에 항산화성분과 필수 미네랄을 보강한 신제품 '뼈곰씨에이스'를 출시했다. 뼈곰씨에이스는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과음, 흡연,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육체피로·신경통·관절통(요통·견통) 등의 이상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준다. 또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을 보강,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 **(주)대우인터내셔널(사장 이태용)**은 지난달 9일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에서 '부산공장이전-준공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태용 사장과 안준태 부산 부시장을 비롯해 500여명 관계자가 참석했다. 녹산공단은 96년 부지를 매입, 2002년 기공식을 가졌고 최근 설비이전을 완료했다. 부지는 2만3000여평으로 총투자금액은 700억원이다. 대우인터내셔널 부산공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67년 대우그룹의 출발이 된 대우실업을 일으킨 곳이다.

• **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은 12월1일부로 씨티은행 중국 상해

에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해 2명의 직원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코리아 데스크 설치가 한국씨티은행의 거래기업 중 중국에 진출한 현지 법인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투자기업에 대해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금융 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미국 등 다른 지역에도 추가 설치, 확대할 예정이다.

•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지난달 11월 15일(목)~21일(일)동안 서울갤러리에서 "두고온 별, 우리의山河"라는 제목으로 근작 30여점 전시회를 가졌다. 고 박덕순 화백, 박기태 화백 등에게 풍경화·인물화 등을 배우며 독특한 화풍을 구축,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프랑스 쇼몽 초대전을 비롯, 중국·러시아·일본·이탈리아 등 국내외서 20여차례 전시회를 가진데 이어 개인전은 세 번째다.

• 온라인서점 인터넷 교보문고(www.kyobobook.co.kr)가 회원들에게 블로그 페이지를 만들어 준다. 인터넷 교보문고는 자사 사이트 안에서 회원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책을 추천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서점 서비스 '프렌드 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교보문고는 책을 읽은 느낌을 회원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 커뮤니티 공간인 '독서공감'을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권경현 교보문고 대표**는 "그 동안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도서 추천을 순수독자들에게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이동희 오성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1월 22일~27일까지 13시부터 40분간 EBS FM104.5Mhz "라디오 기획특강" 프로그램에서 "21세기 선비정신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특강을 방송했다.

• **KTF(대표 남중수)**는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현지에 220만달러 규모의 한·인도네시아 합작법인 프리콤스를 설립하였다. 삼성물산과 국내 IT장비업체인 소프트텔레웨어, 인도네시아 IT업체인 인포컴이 참여하는 이 합작법인은 한국 컨소시엄 51%, 인도네시아 컨소시엄 49%로 구성되며, KTF가 전체 지분의 19.9%, 삼성물산 19%, 소프트텔레웨어 12.1%를 보유하게 된다.

• '40년 최씨 고집'의 주인공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은** 자서전 『독심경영』(랜덤하우스중앙)을 출판하였다.

신규회원

정한택 호서대학 교수 (개인회원)

· 주 소 : 충남 천안시 안석동
· 전 화 : 031-715-4676
· 팩 스 : 031-715-4676
· 업 종 : 교수



이선이 아주대학교 부교수 (개인회원)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아주대 사회과학부
· 전 화 : 031-219-2780
· 팩 스 : 031-219-2195
· 업 종 : 교수



조규용 뉴욕은행 지점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23층
· 전 화 : 02-399-0020
· 팩 스 : 02-399-0055
· 업 종 : 금융업



홍승국 (주)에버그린 대표이사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광진구 노유동 8-3
· 전 화 : 02-4600-501
· 팩 스 : 02-3409-1322
· 업 종 : 시계제조, 수출, 판매 유통, 골프용품 제조
· 추천인 : 강민지 월간골프가이드 사장



차영준 (주)유창 부사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양천구 목3동 603-4 유창빌딩 4층
· 전 화 : 02-2647-9800
· 팩 스 : 02-2649-9809
· 업 종 : 건축자재 생산 및 시공
· 추천인 : 김영재 한신전선 사장



행사소식

『내뇌혁명』의 하루야마시게오(春山茂雄)박사의 일본 전원도시후생병원 방문 프로그램

본 연구원은 일본내 800만부 판매라는 기록과 함께 국내 베스트셀러로도 유명한 『내뇌혁명』의 저자이자 건강요법의 최고 권위자인 하루야마 시게오(春山茂雄) 박사와의 협력하에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노령화 시대를 맞는 22세기의 선진의료기술을 체험하고 향후 한국의 노인요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갖습니다.

《 행사 개요 》

- 방문인원 : 20명 (선착순 접수)
- 방문일정 : 12월 5일 ~ 12월 7일 (2박3일)
- 참 가 비 : 110만원 (항공료 등 교통비, 숙박비 일체 포함)
- 행사내용

▶ 12월 5일

10:00 김포공항 출발
14:00~18:00 가압근력(加壓筋力)트레이닝 심포지엄 (동경대학교)
18:00 하루야마 원장 전원도시후생병원(가나가와(神奈川)현) 이동

▶ 12월 6일

전일 -하루야마 원장 전원도시후생병원 체험 / 하루야마 원장 강연회 / 시설 견학 및 체험 (가압근력(加壓筋力)트레이닝, 건강 진단, 탄산온천 등)

▶ 12월 7일

오전 -하루야마 원장 전원도시후생병원 체험(계속)
12:00 -동경 하네다 공항 출발

※ 문의 : 인간개발연구원 임성미 Tel. 2203-3500

2004 아름다운 송년의 밤

어느덧 금년 한해도 정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회원님들간의 친목과 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전야제로서 다른 해보다 깊은 의미를 지닌 송년행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이란 오랜 기간 회원님들의 애정과 보살핌으로 성장한 만큼 향후 30년도 더 알찬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송년행사를 안내드리오니 미리 일정을 체크하시어 가족과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청가수 공연, 해설이 있는 살롱콘서트, 매직쇼 공연과 함께 간단한 마술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욱더 풍성하고 의미 깊은 송년행사와 30주년 창립기념행사를 통하여 회원사 홍보는 물론 본 연구원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협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04년 12월 28일(화) 18시 30분
- 장 소 :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 사 : 특별강연, 초청가수공연, 매직 쇼, 쌀롱콘서트 외
- 참가비 : 개인 7만원, 부부동반 13만원
- 후원 및 협찬 : 후원금 30만원~50만원, 자사제품 협찬 등
(입금계좌 : 우리은행132-055539-13-502)
- 문 의 : 인간개발연구원 (TEL, 2203-3500)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세스코	전순표 회장	(12월 1일)
(주)흥아기연	강대희 회장	(12월 1일)
동우화인캠(주)	한의섭 부회장	(12월 7일)
(주)삼탄	강태환 사장	(12월 10일)
중원콘텍(주)	김만용 사장	(12월 10일)
대한해운(주)	이맹기 회장	(12월 12일)
신명인터내쇼날(주)	최해규 회장	(12월 15일)
(주)성도GL	김상래 사장	(12월 17일)
원풍물산(주)	이원기 회장	(12월 20일)
(주)교보문고	권경현 대표이사	(12월 24일)
일신태광금속(주)	김유훈 대표이사	(12월 26일)
한일시멘트(주)	허정섭 회장	(12월 28일)

연구원소식



소모임소식

• YCF는 지난 11월 23일(화) 강남 V-Society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조 순 본 연구원 명예회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1부 행사는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이용관 원도우오케스트라 단장의 사회로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이 이어졌으며, 신입회원인 소프라노 고미진, 뮤지컬 가수 이승진 회원의 공연, 이용관 단장의 섹스폰 연주 등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행사로 YCF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상래 회장은 1년 동안 고생한 임원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내년에도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을 기약했습니다.

YCF 송년모임에 협찬을 해주신 김상래 사장, 신숙희 우먼타임스 사장, 김은영 지오마케팅 사장, 김창호 에덴스포츠타운 본부장, 이용관 원도우오케스트라 단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 김상래/(주)성도GL 사장)



▶ 11월 23일 YCF는 V-Society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 **차이나클럽**은 지난 11월29일 명동 뱅크스클럽에서 '중국의 농업 정책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고재모 협성대학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와 패널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분석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이나클럽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차이나클럽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장 홍순영 / 한국외교협회 고문, 사무총장 이두호 / 한국자금중개(주) 사장)

• **이종기업동우회 제2그룹**은 다음과 같이 부부동반 모임과 골프모임을 갖습니다.

〈정기모임〉

- 일시 : 2004년 12월 7일(화) 18시 30분
- 장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 1층 모데라트룸
- 연사 : 광동제약(주) 최수부 회장
- 주제 : 제약산업의 발전도상

〈골프모임〉

- 일시 : 2004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10분
- 장소 : 이스트밸리CC

(회장 전순표 / 세스코 회장, 총무 우창욱 / (주)동명인쇄 사장)

중국길림성 국유기업 연수프로그램

인간개발연구원은 중한해외연수원(원장 김영옥)과 함께 한·중 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동북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취지 하에 중국 길림성 국유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한국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11월 28일 ~ 12월 28일(1개월)
- 대 상 : 중국 길림성 국유기업 CEO 25명
- 연수내용 : 한국의 경제·경영의 이해 및 한국기업체 탐방, 한국문화체험
- 연수장소 : LG인화원 외
- 방문장소 : 유한킴벌리, 코리아나화장품, 삼성석유화학, 현대자동차, SK주식회사, LG전자 외
- 기 타 : 참가자들과의 교류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기획팀 변하도 팀장 (02-2203-3500 내선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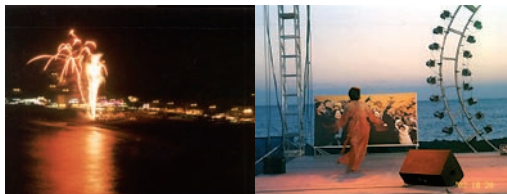


12월 지자체 소식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해변 해맞이 축제

천혜의 해안 자연경관과 탁 트인 넓은 시야의 해변을 갖추고 있는 강동해변은 해맞이 감상 최적지로 평일은 물론 매년 신년 해맞이 감상 관광객 수만명이 찾고 있어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간직토록 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 1박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해맞이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기간 : 2004년 12월 31일~익일 1월 1일
- 장소 : 북구 강동동 정자해변
- 내용 : 전야제 행사 - 락페스티벌, 시민장기자랑, 초청가수공연, 풍물공연 등
해맞이 행사 - 대북놀이, 시낭송, 연날리기, 소원쓰기 등
- 주최 : 정자해변 해맞이 축제 추진위원회



• 인천광역시, 『仁川 앞바다 바로알기』探查活動展

인천에서는 인천 앞바다의 귀중하고 아름다운 섬들을 바로 알고, 바로 알리기 위해 시작한 『인천 앞바다 바로 알기』 탐사활동을 정리하고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나오셔서 탐사단원들과 인천 앞바다의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04년 12월 3일~9일(1주일간)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문 의 : 인천시 수질보전과 032-440-3641~5

• 충청북도, 『청남대 툼립나무 거리, 아름다운 거리 숲 분야 전국대회 입상



산림청과 생명의 숲, (주)유한 김벌리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아름다운 거리 숲 부문에서 청남대 툼립나무 거리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최측은 선정

사유에 대해 청남대 진입로 가로수의 생육 및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하여 생태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음을 들었습니다.

청남대 가로수 길은 대청호반을 끼고 도는 터널형태로 30~40년 생 된 470여본의 백합나무가 2.3km구간에 걸쳐 식재·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서는 순간 웅장함에 도취되며, 일몰 무렵 대청호반과 어우러져 펼쳐지는 모습은 환상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세원화성 2차 “효과적인 개인 생산성(EPP)”과정 안내

올 상반기부터 세원그룹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하는 리더들의 퍼스널 리더십(EPL)”과정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룹 계열사인 세원화성의 중간관리자급 2차 “효과적인 개인 생산성(EPP)”과정 개강식이 지난 11월 20일 대전공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47개국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의 무한한 잠재능력 개발”이라는 LMI 비전과 함께 새롭게 발전해나가는 세원그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EPL 수료자 정기 모임 안내

1. 제14차 정기 강연회 - “인류 건강의 신기원”

- 연사 : 서성호 (사)생활건강점혈요법학회 총재 / 대한민국 사이버국회 대체의학특별위원장
- 일시 : 2004년 12월 13일(월) 오후 6시~
- 장소 : 매경빌딩 제1교육장

2. 12월 정기 등산회 안내

- 가는곳 : 청계산
- 일 시 : 2004년 12월 18일(토) 오전 11시

☞ LMI 교육프로그램 소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 내용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 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임.
- 기간 : 16주간, 주1회 일정요일, 2시간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 내용 : 조직생활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 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임. ※ 석세스플래너 포함
- 기간 : 9주간, 주1회 일정요일, 3시간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 내용 :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임.
- 기간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잠실본사)

(T) 2202-8700 (F) 445-2086 (H) www.lmikorea.com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co.kr

제1회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스 네트워크 포럼

2004년 11월 2일(화) 조선포템 오키드룸

본 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추진되어왔던 'Global Koreans Network'의 발판을 마련하고 한민족 경제인 상호간의 만남을 통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2일 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스 네트워크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중소기업인 및 제주에서 열렸던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했던 많은 해외동포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하여 '포스트-세계한상대회'로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하셨던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과 이근우 Overseas Merchanding Corp 사장의 강연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1〉

인재를 키우는 것이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문국현 유한킴벌리(주) 사장 / 뉴패러다임포럼 공동대표



저는 우리사회에서 지식경영을 부르짖으면서 늘 메가트렌드가 뭔가 하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휴렛팩커드의 여성 CEO인 칼리 피오리나가 한국을 방문해 변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변화는 전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우리의 전통산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 200년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지난 20년이 어찌보면 무색할 정도로 앞으로의 20년은 새로운 변화를 전방향으로 발생시키면서 세상을 몰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C라고 얘기했는데 Capability, Character, Collaboration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기업, 사회가 다함께 현대사회·지식사회에 맞는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고, 평생학습을 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하지 않고, 어떤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 선도를 해내지 못한다면 디지털 디바이드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가야할 길은 이제 정도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기업, 국가가 정도를 갖고 신뢰를 구축하고 노조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투자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이 아마도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사회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 평생 학습하는 사회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사회에는 없는 직장 내 평생학습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유일한 정신'을 받들어서 기업혁신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시장점유율이 여성용품의 경우 세계적인 기업 P&G보다 3배가 넘고, 유아용품에서는 7배가 넘고 P&G가 가정용품에서는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여덟 개 전 산업분야에서 1위를 하고 품질이나 안전성이나 생산성, 환경 측면에서 초일류기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종업원들은 우리 회사를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위치로 바뀌게 되었고 김벌리클라크라는 회사는 아시아에 소유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유한킴벌리와 유한양행에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정도를 가려고 결심했던 노력들, 둘째는 과감히 환경설계와 환경친화기술을 도입했던 것, 셋째는 마이클 포터의 이야기를 믿고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를 믿으면서 과감히 저희 회사를 평생학습 기업으로 지식기업으로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적 통합효과 외부적 통합효과에 의한 종업원들의 신뢰, 그리고 위임경영, 스피드경영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도 지역사회가 지원해주고 정부가 믿어주고 학계가 믿어줌으로써 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경영정보를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시스템과 ERP시스템 등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과감한 변신과 개혁이 10~15% 이상의 손실을 줬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매출이 3~4배 뛰고 순이익은 20배까지 늘어나서 1,000억대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화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지식참여경영 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칼리 피오리나와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지식사회의 특성은 수평적 조직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피라미드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생산 근무방식도 다 바꿨습니다. 과감히 생산직에선 4조 2교대를 도입해서 4일 일하고 4일 쉬 수 있도록 7~8년 전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유가 있는 인력은 안식년으로 또 혁신팀으로 디자인팀으로 흡수해 가면서 지난 10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4일 일하고 4일 쉬는 동안 자기개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물론 세계의 특수한 산업에서 수십만 평의 작업현장을 가지고 전국적인 유통을 하고 있는 데서 가장 사고가 적은 안전한 기업이 된 것은 그분들이 충분히 지식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변을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국가에도 적용해 볼까 해서 현재 '사람입국 신경쟁력위원회'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각계에 관심 있고 뜻있는 분들이



모여 정부, 학계,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로해소를 통한 안전혁신, 학습조확보를 통한 평생학습, 신서비스 창출을 통한 전문서비스직을 많이 만들어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지식이 기반이 되는 혁신주도

형 사회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가 융성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뉴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의 장으로 끝나지 말고 학습의 장이 되게,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그 훌륭한 사람들에게 회사와 산업 내에서 더 좋은 기술과 역량, 지식을 넣어서 40세가 넘어서도 피크 퍼포먼스가 되게 그렇게 기업이 학습의 장으로 바뀌어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 1400만을 놓고 본다면 3,400만 그리고 평생학습을 생각했을 때 500만의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추세를 지원해주시고 우리사회가 보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학습사회로 가도록 또 그 선봉에 CEO들이, 지도층들이, 정부가 앞장서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사회는 고신뢰, 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성과 사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제발표 2>

**세계시장과 한국기업 그리고 한국상품이미지
- Global Network에 의한 경쟁력 제고**

이근무 美 Overseas Merchanding Corp 사장/前 세계한인 무역협회 회장



저는 덴마크에서 2년 살았고, 지금 시카고에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면서 모국과 우리 민족을 볼 때 흔히 이태리반도, 로마제국과 함께 비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땅이 좁고 그간 어려웠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다시 들여다 볼 때 우리민족만큼 우수하고 훌륭한 민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이러한 민족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해 나갈 때 세계평화가 이루어지고 인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을 공부했습니다. 1960년대는 농업인구가 전 국민의 약 70%까지 됐고 농업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명제가 있었지만 세상이 변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농업은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국가적으로도 골치 아픈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약하나마 한국농업과 미국 선진농업의 가교역할을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며 농업무역을 오늘날까지 28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은 일이지만 보람을 갖고 제 삶에서 후회 없이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십니다. 그 숫자를 650만 정도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해외에 가장 많은 재외동포를 둔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민족은 세계 150여개국에 퍼져있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렇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가 인구비례로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외동포가 과연 모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우리는 모국에 부담을 주는 부채냐 하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도달한 결론은 우리는 자산이다 하는 공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경제연구소(IEE)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 재외동포들의 자산규모와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봤는데 1,250억 달러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모국 GDP의 1/4 정도 수준이고 인구로 봐서도 13% 정도가 해외에 산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모국의 발전, 우리 민족의 발전은 재외동포라는 변수를 제외하고서 국가적, 민족적인 발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국에서 앞으로 국가적, 민족적인 발전을 할 때 해외 요인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을 고려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방향이 설정될 때 우리 민족이 더 빨리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평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토 중 첫 번째가 'Ethos'입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는 우리 후손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민족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족정신을 유지해보자는 것이며 그 바탕은 홍익인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Knowledge'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재외동포들도 그러한 지식사회, 지식산업에 더 많은 인재가 나갈 수 있도록 지식 축적을 더 중요시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Speed'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런 스피드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외민족운동의 정신적인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경제와 문화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족 경영에 참여하고 우리 민족이 더 잘 사는데 기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국에 계신 좋은 분들과의 모임을 갖는 기회를 앞으로 많이 갖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될 때 국가도 세계적인 국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모국 정부에게 우리 재외동포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것이 부담스런 존재가 아닌 자산이므로 자산을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민들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다시 퍼져 나가는 강인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국정부와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젊은 인력을 해외에 내보내는 정책을 꼭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人間**

희망만이 희망이다

엄경애 한국엘엠아이(주) 사장

희망 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쥐를 가지고 동물실험을 했다. 100마리씩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철판을 깔 뒤 바닥에 전기를 통하게 하고 다람쥐 쳃바퀴를 장치했다. A그룹은 이 바퀴를 50회 이상 돌리면 전류가 잠시동안 끊어지도록 컴퓨터 장치를 하고, B그룹은 아무리 돌려도 끊어지지 않게 해 두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전류를 통했다. A그룹의 쥐들은 전류가 통해 발이 찌릿찌릿해지면 빨리 바퀴 위에 올라가 바퀴를 돌리면 전류가 아주 잠깐 동안 끊어진다. 그러나 B그룹의 쥐들은 아무리 바퀴를 돌려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3주를 계속했더니 B그룹 쥐들은 모두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그 쥐들의 뇌를 검사했더니 뇌 속에 우울증과 관련이 깊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푹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B그룹의 쥐들은 결국 지쳐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양쪽이 다같이 30분 동안 전기를 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A그룹의 쥐들은 이 세로토닌 수치가 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A, B 두 그룹이 똑같이 30분씩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 A그룹이 스트레스를 30분 동안 적게 받은 것은 아니다. 아주 잠깐 동안 끊어지는 척 했을 뿐 받을 것은 다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그룹은 쳃바퀴를 돌리면 편안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가에 의해 세로토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희망과 절망이라는 감정에 의해 세로토닌이 분비되기도 하고, 아주 분비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임을 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성공한 3%의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리더십의 핵심인 3가지 정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첫째가 긍정적 정신자세요. 둘째가 끊임없이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지향성이

요. 셋째가 자발적 동기부여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분노하며 포기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찾는 긍정적인 정신적, 감정적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집요하게 목표를 추구한다.

그들은 어느 누구의 지시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사명감과 신념이 그들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정이라는 자동모터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구의 3%에 속한 우리나라의 성공한 기업인과 지도자, 그들의 꿈과 희망과 용기가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적을 일구어 낸 원동력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70년대,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던 황무지에서 누가 보아도 황당한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낸 신화창조의 경험을 가진 성공한 리더들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어느 곳을 보아도 희망이 안 보인다고 심각하게 걱정을 한다. 이 희망이라는 것, 꿈과 목표라는 것이 우리들의 정신건강과 물리적 건강, 사업의 성취는 물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안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을 바라보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 스스로 보다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울 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해진다. 꿈을 꾸는 것도, 희망을 갖는 것도 정신적 습관이다. 습관은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인구 중 1%가 명상을 하면 범죄율이 현저히 준다고 한다. 꿈과 희망이 없이 운동이나 건강식품만으로는 결코 건강해 질 수 없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엘엠아이는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며 우리가 가진 장점과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효과적으로 경영하여 꿈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人間**

다시 자연의학으로

상처 가 나면 응급실에서 봉합술을 받는다. 얼른 생각에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그건 보조 수단일 뿐 정말 치료는 우리 속에 내장된 자연 치유력이 하는 것이다. 출혈이 멎고 찢긴 조직이 다시 붙고 딱지가 앉고 얼마가 지나면 상처가 말끔히 없어져 원상회복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의사가 아무리 봉합술을 잘 한데도 자연 치유력이 약하거나 없다면 상처는 결코 낫지 않는다.

이건 모든 생물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감기도 절로 낫는 것이지 병원 치료가 낫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감기 증상을 가볍게 할뿐이다. 따라서 감기 치료약이란 건 없고 일단 걸리면 일주일쯤 경과되어야 절로 낫게 된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작은 불편을 못 참고 약을 먹는다. 그러니 의사 처방도 많아 질 수밖에. 설사가 심해 아주 녹초가 될 지경이 아니라면 그냥 두는 게 좋다. 설사란 몸에 해로운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빨리 배설하려는 자연치유 작용이다. 여기에 지사제를 복용, 억지로 막는다는 건 몸 속에 독소를 그냥 안고 가는 반(反)치료 행위다.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항생제만인가. 걸핏하면 약을 쓰기 때문에 의료 공해란 말도 나온다. 의료만이 아니다. 현대인의 일상생활 전부가 인공환경과 화학물질로 뒤덮여 있다. 사는 집도 새집증후군, 입는 옷도 알레르기, 매연, 가스로 오염된 공기, 중금속으로 오염된 해양, 온갖 화학 비료로 뒤범벅이 된 식탁, 물 한 모금 마음놓고 마실

수 없고. 우리는 세계 최악의 환경오염 속에 살고 있다. 그 뿐인가. 생활 소음, 냄새, 지옥 같은 교통, 각종 스트레스...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여기서 건강하게 산다는 건 가히 기적이다. 요즈음 자연의학이 재조명을 받게 된 소이는 여기 있다. 무엇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자연 치유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감기도 잘 걸리고 잘 낫지도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병이 병발하기 쉽다.

설상가상, 우리의 생활 습관도 반 건강적이다. 가난의 유산인가. 지금도 우린 빨리 먹고 아주 포식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흡연, 과음도 단연 세계 정상이다. 거기다 운동은 없고 마음도 언제나 조금 중에 시달린다. 교감신경의 만성 흥분으로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오른다. 당뇨, 뇌졸중, 암, 비만... 안 걸린다는 게 이상하다.

우리도 이제 장수국이 되었지만 건강 장수는 겨우 62세, 세계 81위다. 그만큼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 많다는 뜻이다. 거기다 우리의 낙천성, 설마! 내가 하는 통에 도대체 예방 개념이 없다. 하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병 등 일단 확진이 되면 평생 고질이 된다는 것쯤 알고 있어야 한다. 불행히 우리 형편은 자식도 나라도 병든 노인을 돌 볼 여유가 없다. 결국 개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숲 속에 자연 의학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공해와 스트레스로 찌든 심신을 해독하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한다. 건강식단, 과학적인 운동, 명상과 사색, 그리고 개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상담해 소위 반 건강, 반 질병 경계인을 완전 정상으로 만들어 내보낸다. 우리가 왜 이런 캠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해되었으면 좋겠다. **人間**

2004년을 보내면서



한마 디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2004년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인간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하고자 계획하거나 마음속으로 아름답게 그려보았던 일들이 참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두서너 해를 보내면 내 나이가 70에 이르게 되고 연구원도 내년 2월 5일이면 30주년을 맞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1세기는 대변혁의 시대'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변혁의 압박을 받으며 살아온 한해였다는 것이 실감난다. 이라크 전쟁에 이어 미국 대선이 가져다준 세계질서의 변화, 현직 '대통령 탄핵'에 이은 총선과 보궐선거 등으로 일어난 국가질서 변화와 사회, 정치, 경제적 혼란상은 우리 국민 모두가 겪어온 '리더십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유가급등, 400만을 넘는 신용불량자와 이에 따른 내수시장(소비경제) 침체, 40만에 가까운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한 실업대란, 전국공무원노조가 말해주고 있는 노동조합문제, 수도이전 위헌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 미국의 대선 결과와 맞물린 북한의 핵문제 등은 2004년 12월을 맞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더욱 어렵게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심각한 '경기침체기(Depression)'에 빠져 '잃어버린 10년'의 고통을 받아온 일본을 닮아 가는 '잃어버린 10년의 한국'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경기침체'를 말할 때 우리는 진단과 치료의 의미로 말하기보다는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한숨 쉬며 토해내는 '침체'에 대해 이야기한다. '암울하다', '침울하다', '절망적이다',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상태를 'Depression'은 말해주고 있다. Depression은 외형적인 원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

에 많이 일어난다. 자기가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의 유용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장차 꼭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의심이 갈 때 '침체감'을 갖게 된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신감의 상실은 삶의 에너지를 강탈해버리고 그 결과 침체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그러면 오늘의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길

은 무엇일까. Depression을 이기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우선 육체적으로 움직여 보는 것이다. Depression의 뿌리를 근절하는 비결은 Depression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누워있기 보다는 바로 일어서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아 자기가 바라던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Depression이야말로 잠자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일깨워주는 훌륭한 스승이다. 스승이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전진해 가라는 것'으로 여기에서 에너지가 샘솟는다.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 된다. 자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생긴 에너지는 움직인 만큼 공급된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가만히 서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이다.

토마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교육의 가장 값진 결과는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때 자기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가 해내는 '실천능력'이다. 이것이 꼭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다. 처음에 자기 자신이 교육훈련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교육의 결과인 실천능력은 자기가 철저히 배워야 할 맨 나중의 교훈일 수도 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인생의 과제가 있고 교육을 통해서 그 인생의 과제를 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물론 국가적 난제들은 우리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위대한 교사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의미심장한 것이다.

2004년 12월을 맞아 연구원이 1975년 2월 5일에 창설된 이후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Peace', 'Prosperity', 'Happiness'라는 3가지 단어 속에 담긴 의미와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Better People Better World"운동의 기치 하에 인간개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질고의 세월이었다고 회상된다. 태아를 잉태하면서부터 산고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개발연구원도 우리 국가사회와 인류사회가 원하는 값진 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연구원의 회원 여러분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의 힘으로 오늘까지 버티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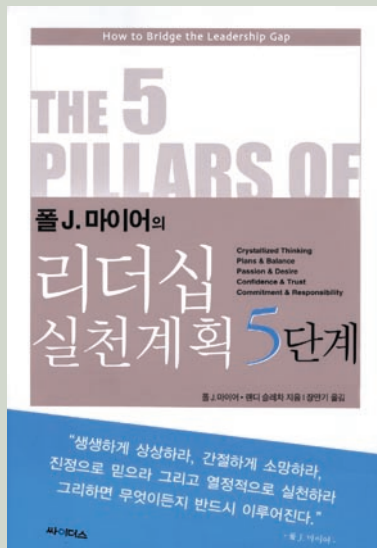
금년 12월은 연구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준비를 해야하는 마지막 달이다. 12월 28일의 '송년회'와 2005년 1월 6일 '신년하례회'에 모든 회원과 강사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의 참가를 바란다. 그리고 그 동안 열악한 여건에서도 참고 열심히 일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송년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人間**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시간 당신의 시간과 인생을 석세스플래너로 관리하십시오

효과적인 시간관리, 인생관리 도구 My-Tyme Success Planner



시스템과 제도는 사람을 궁극적으로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체는 리더십이다. 경영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변화를 유도하는 능력이다. 폴 J. 마이어 회장이 경험으로 정리해낸 리더십 실천계획 5단계는 이 단계에 따라 누구나 쉽게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

윤병철(한국FP협회 회장)

이 책은 자신이나 가족, 자신이 속한 조직,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영감을 생생하게 하는 책이다. 마이어가 제시하는 보편적인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강현구(경영학 교수, <아름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의 저자)

폴 J. 마이어는 복잡한 이론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은 삶에서 보다 나은 리더십과 성공 그리고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양병무(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리더십의 본질이 아닌 단지 기술만을 설명하는 책들은 너무도 많다. 당신은 이책을 통해 폴 J. 마이어가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본질에 관해 배울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David Sibley(텍사스주 상원의원)

내 나이 스물다섯이 되었을 때, 폴 마이어와 Success Motivation Institute의 프로그램들은 내가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리더십 갭을 극복하게 해줄 것이다.

John C. Maxwell(목사, (주)INJOY의 창립자)

폴 마이어가 지난 50여년간 수많은 시도에 의해 검증된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명료하고 간결한 언어로 리더십 갭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John Edmund Haggai(Haggai Institute for Advanced Leadership Training 소장)



한국엘엠아이(주)
http://www.lmikorea.com

■ 잠실본사 ☎ 2202-8700 ■ 명동지사 ☎ 774-3230

딸에 때문에...

"딸 둔 집에선 룰루가 필수입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남편 때문에...

"깔끔한 남편은 아내가 챙겨줘야죠!"

온가족이
쿨쿨농사세요!

룰루비데 (BA03-A)

닫지 말고 씻자 —
Looloo
룰루비데

※문의처: 1588-5200